

세상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심리학

唯識, 그 이해를 위하여...

원효학당 불교강좌

기간 | 2024년 1월 10일 ~ 2월 24일

강좌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唯識, 그 이해를 위하여...

일시		강의 주제
1	1월 10일	불교사상사의 맥락에서 유식사상의 의의
2	1월 17일	알라야식(ālayavijñāna)의 기능
3	1월 24일	알라야식의 소멸과 의지체의 전환
4	1월 31일	식의 전변과 유식무경(唯識無境)
5	2월 7일	삼성설 I (三性說)
6	2월 14일	삼성설 II (三性說)
7	2월 21일	유식학파의 발전: 아말라식과 여래장 관념
8	2월 24일	강좌 Review & 문답 (한국불교연구원 불당)

강연 주제: 유식사상의 세 기둥인 **알라야식**과 **삼성설**, **유식성** 개념의 이해

각각은 <섭대승론>(MSg) I-III에서 다루어졌다.

Cf. MSg IV.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한 인과: 6바라밀

MSg V. 수습의 단계: 보살 십지

MSg VI-VIII. 계정혜 三學

MSg IX. 번뇌의 끊음의 결과로서의 열반

MSg X. 붓다의 三身

세 교설은 각기 독립적으로 발전되었고 유식문헌에서 다르게 취급

1. 불교에서 識(vijñāna)의 문제와 알라야식

중생(the sentient being)을 살아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식**, 명근, 체온
여기서 sattva는 ajāḍa(not cold, not stiff, not senseless)로서 **지각성의 유무**에
의해 有情과 無情物이 구별. Cf. Qualia "감각질"

의식과 물질은 상호 구별되는 두 가지 범주로서, 서로 환원될 수 없는 것.

이런 점에서 불교에서 물리주의의 관점은 부정되며, 오히려 1인칭 관점에서 의
식과 독립해 있는 물질의 존재성은 계속해서 논란

달라이 라마는 무상요가탄트라에서의 최종적 해석을 제외하면 심-신 이원론의
입장을 지지

식과 연관된 다른 용어들: 심(citta) 어근 cint "to think, consider"

意(manasa) 어근 man "to esteem, evaluate, pride, value etc.)

불교전통에서 식은 흐름(相續, stream)으로서, 대상을 요별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간주.

흐름의 의미는 아트만적 실체 개념의 부정으로, 대상의 요별은 자동사적으로 대상을 인지하는 것으로 설명

1.1. 여섯 유형의 식

18계설: 근(根, 인식기능) + 경(境, 지각대상) → 식(識, 감각/지각)

시각능력 (眼根) + 형체 (色) → 시각 (眼識)

청각능력 (耳根) + 소리 (聲) → 청각 (耳識)

후각능력 (鼻根) + 냄새 (香) → 후각 (鼻識)

미각능력 (舌根) + 맛 (味) → 미각 (舌識)

촉각능력 (身根) + 접촉 (觸) → 촉각 (身識)

사고능력 (意根) + 개념 (法) → 지각 (意識)

1) 중생의 인식은 (가) **감각기관**에, 또한 (나) **대상**에 의존한다.

(가)의 주장은 다양한 우주론과 존재의 차이를 전제하는 인도불교의 맥락에서 당연시되겠지만, 서양사상에서는 비로소 19세기 이후 생물학의 발전에 의해 본격적으로 문제시된 것.

(나)는 후설의 **지향성(intentionality) 개념**에 대응. 지향성이란 “의식은 무엇에 대한 의식.” 의식작용(noesis)은 반드시 의식대상(noema)을 가진다는 것.

불교에서는 인지를 위해 어떠한 종류의 주체를 전제할 필요 없이 다만 인지들의 연쇄만이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

이는 불변하는 아트만의 존재, 특히 행위자(agent) 개념의 부정을 위한 것.

2) 6식의 특징:

현재 작동하는 지각: 전5식은 두말할 필요 없이 현재 작동하는 지각작용이지만, 의식은 비록 그 대상이 과거의 것이라고 해도 현재 작동하는 것.

한 찰나(ca 0.1~0.2초)에 하나의 식이 생멸한다.

식은 心所라고 불리는 여러 심리작용을 수반해서 생겨난다.

1.2. 6식의 교설이 가진 문제점

1) 아비달마의 문제점

아비달마, 특히 유부는 현재 작동하는 지각의 인과적 분석에 중점. 이를 위해 5위 75법의 법상체계를 구축하고 심의 공시적 분석을 일차적 과제
이때 통시적 측면에서 식의 윤회적 측면에 대한 설명이 요청될 것임. 왜냐하면 오온으로 중생이 구성되어 있고 또 오온 중에서 식이 가장 미세한 요소라면 윤회과정의 담지자는 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

이는 식이 모태에 들어와서 자신의 존재기반(6처, 몸)을 형성할 때 식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

하지만 아비달마의 현상적 의식분석에서 이 측면은 방치되었다.

2) 현상적 의식작용이 중지된 상태와 관련된 문제점

현상적 의식작용이 없는 깊은 명상이나 기절의 상태에서 중생의 생명유지를 가
능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컨대 想受滅定의 경우이다. 想과 受가 없을 때 식이 존재할 수 없는데, 상수멸
정에 들어간 수행자가 다시 그곳에서 퇴정했을 때 교학에 따른 설명의 난점

3) 심층적인 자아의식의 존재

모든 번뇌의 근원으로서의 有身見(satkāya-dṛṣṭi)에 대한 새로운 인식. 유신견의
문제는 유식학파의 새로운 128종의 번뇌설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2. 唯識性(vijñaptimātratā)의 문제

唯識(vijñaptimātra)이란 '단지 표상일 뿐'이라는 의미

유식이십론(Vim p.30)의 앞에서 십지경의 三界虛妄 但是心作 (cittamātram idam yad idam traidhātukam)을 인용하듯이 唯心(cittamātra)은 唯識과 동의어로 간주.

唯識無境이라는 술어처럼 유식은 외부에 존재하는(out there) 대상존재의 실재를 부정하는 주장으로서 일종의 불교관념론이라고 간주.

하지만 외부존재자들을 의식 내부의 요소로 환원시키면서 이를 위해 의식과 독립해 존재하는 외부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진제에 의해 유식무경의 주장이 소개된 이래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반향.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이는 대상에 대한 여실한 앎이라는 불교의 최종적 목표와 관련되기 때문.

불교사상에서 이는 **전5식**(眼識~身識)과 **제6意識의 구별**에 의해 수행
예: 붉은 장미를 보았을 때, 먼저 내게 어떤 '붉음(x)'의 안식이 생겨난다. 다음
찰나에 붉음의 안식이 意根이 되어 法(과거의 기억 내지 관념)을 대상으로 취해
'it is red'라고 'x'와 red를 동일시하는 제6의식이 생겨난다.
그때 전자가 **직접지**라면, 후자는 일종의 통각으로서 **개념지**.

an awareness 'x' vs. an awareness **that it is red**

문제: 그렇다면 전자 'x'의 지각은 대상에 대한 온전한 앎인가? 즉, 'x'는 대상 자체에 속한 성질인가?

유가론: 6식이 생기할 때, 率爾心(aupanipātika), 尋求心(paryeṣika), 決定心(niścita)의 세 심의 찰나가 있다. 여기서 aupanipātika란 “돌연 자극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심구심이란 그것을 탐색하는 심의 찰나이며, 결정심이란 그것을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심의 찰나이다. 그리고 다시 산란하게 되면 의식 다음에 다시 전5식의 어떤 것이 돌연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x'는 일상적 산란심에 돌연히 나타나는 어떤 신경 자극과 같은 것으로서 의식에 의해 포착되고 개념화되기 이전의 어떤 감각자료이지, 결코 定心(samāhittacitta)에 의해 경험되는 진여와 같은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개념지가 실재하는 외부대상에 대한 앎인가이다.

아비달마학파의 실재론적 관점: 유부의 관점:

근 + 경 = 식의 도식이 보여주듯이, 식은 대상(境)을 취하며, 그 대상은 식의 외부에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손가락 끝을 가리킬 수 없듯이 식은 지시대상으로서 외부대상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x는 외부대상에 대한 앎이며, 그 앎은 인식대상 x가 주어짐과 동시에 x로서 파악하기 때문에 대상을 그대로 파악하는 것

경량부의 관점:

식은 대상이 주어진 다음 찰나에 생기기 때문에, 즉 주어진 대상과 인식 사이에는 시간적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찰나의 인식과 대상과의 일치 여부는 확인될 수 없다.

다만 앎 x가 일어날 때, 그것은 항상 대상을 가져야 하기에 그 대상이 외부에 존재해야만 한다고 추정되지만, 그것은 이미 직접지각의 영역이 아니다.

이와 같이 유부와 경량부의 입장은 차이는 있지만, 모두 외부대상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실재론의 관점. 즉 외부대상은 심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하지만 이런 외부대상의 존재성, 또는 대상이 의식과 독립해서 외부에 존재한다는 주장은 초기불교 이래 불교의 입장인 **능-소(noesis-noema)의 상관관계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상관관계는 대승에 의해 <**心外無物**>로서 다시 해석되고, 유식학파에서 **유식의 논증은 대승의 범무아설**과 관련해 수행.

삼성설의 맥락은 본 강연에서 다룰 예정.